

# 은빛 화음으로 회향합니다

## 부산에 첫 불교실버 '도솔합창단' 창단



부산 각 사찰합창단에서 활동했던 60세이상 여성불자들이 '부산도솔합창단'을 결성했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실버합창단이 창단됐다.

60세 이상의 여성 불자들이 주축이 돼 창단된 부산도솔합창단은 2월 3일 첫 연습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화음을 고르며 노래 인생을 멋지게 화향할 준비에 한창

이다. 2월 10일, 두 번째 연습이 열리는 양정불교회관 내 금정불교대학 강당을 찾았을 때, 두 번째 연습이라고는 민기지 않을 정도로도 풍부한 성량과 화음을 구사했다. 비결을 물었다. "부산의 주요 사찰이나 합창단에서

활동하던 단장님들이 많아요. 벌써 몇 십년 동안 노래를 불러온 분들이라 개인기가 뛰어나요." 부산도솔합창단을 지도하는 이연화 씨는 이렇게 답했다.

이처럼 부산도솔합창단 단원들은 '실버'라는 별도의 단어가 무색할 만큼 수준급의 실력과 활동 경력이 자랑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영주암, 선

### 50~70대 여성불자 풍부한 성량 자랑 "음성공양으로 포교·봉사 헌장 준비다"

암사 등에서 합창단 단장을 지낸 이들이 노래를 통한 봉사와 회향을 서원하며 한마음으로 뭉친 것이다. 어느 합창단에 뒤지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다는 자부심을 가진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20여명 정도의 단원들이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부산불교교육대학, 통도사부산포교원 합창단 등을 지휘해온 이연화 씨가 앞장을 섰다. 사찰 합창단을 지휘하며 나이 때문에 활동을 접으면서도 음성공양 울리는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단원들을 많이 접했다. 결국 그들의 좋은 목소리가 포교와 불

교합창단 발전을 위해 울리게 해보자 마음을 낸 것이다.

"5년 전 벌써 실버합창단을 창단해 왕성한 선교활동을 벌이는 기독교를 보며 불교 실버합창단 창단을 서원하게 됐다"는 이 씨는 "사찰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찬불가를 통한 포교와 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범어사합창단 2대 단장을 지낸 한재희(67) 보살은 "비록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50년 가까운 합창단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소식을 듣자마자 입단했다"며 환

하게 웃어보였다. 부산도솔합창단은 6개월 정도의 연습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지면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양로원, 고아원을 찾아 찬불가, 가곡, 외국곡 등 다양한 곡들을 선사하는가 하면 도반들의 49재 때는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게 된다. 특히 1년 뒤에는 정식으로 창단 기념 공연도 가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사공에 가서 한국의 찬불가를 알리는 공연도 구상중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도심에 나투신 괘불 탕화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동구 선광사 외벽 빌딩에 봉안된 9m×7.5m의 괘불탱화.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를 맞아 동구 도심 빌딩에 9m×7.5m의 괘불탱화를 모시고 49일간의 일천배 정진기도를 계획한 스님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구시 동구 선광사 주지 예산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 스님은 2월 28일 오

전 9시 30분부터 4월 6일까지 49일간 안심 지하철역 3번 출구쪽에 야단법석을 마련하고 지하철 참사 사망자 196명의 원혼을 달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진기도에 들어간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불화를 통해 수행 정진하던 예산 스님은 "대구지역에 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지

### 대구 선광사 예산 스님 봉안 지하철 참사, 국태민안 기도

역경의 침체로 각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도 빌어보자는 염원으로 괘불탱화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법당의 인파가 따로 없이 부처님을 보면서 주도의 마음을 낸다면 원혼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8일 입재에 들어가는 49일 일천배 정진기도는 4월 5일 회향 전야제 행사로 촛불 추모 대법회를 지내고 4월 6일 천도대제를 통해 회향한다. (053) 963-9945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이해와 화합으로 학교 이끌 것"

### 부산불교교육대 새학장 강선태 씨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회(위원장) 해충은 9일 교육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학장에 강선태(63·대성한의원 원장·사진) 전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차기 학장 선출 과정에서 박주천 부학장의 갑작스런 죽음을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던 부산불교대학은 2월 14일 제13기 불교학과와 경건



연구반 수료식, 17일 제22기 교리반 수료식을 갖고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선태 원장은 학장 추천을 수락하면서 "포교사 고시 때 마다 전국 최대 합격자수를 기록하는 명문 교육기관의 학장을 맡게 돼 집이 무겁다"며 "학장 선출과정에서 있었던 마음 아픈 상처들을 잘 어루만지고 이해와 화합으로 학교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일 6시 코모도호텔 등백홀에서 학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용호복지관 언어치료센터 개소 아동 대상 '일대일' 치료 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가릉빈가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치료센터가 용호복지관(관장 해충)에 문을 열었다.

2월 6일 개소식(사진)을 가진 용호복지관내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는 언어발달이 다른 아동에 비해 늦은 아동이나 정서적 인 문제로 인해 말을 잘 하지 않는 아동,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동 등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언어치료사 이미정씨가 센터장을 맡아 운영되는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는 36개월부터 초등학교

생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12시부터 7시까지 일대일 치료를 실시한다. 언어 장애뿐 아니라 읽기, 쓰기 등의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임광수 낙동북지관 관장, 박용하 계곡북지관 관장 등이 참석해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해충 스님은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는 아동들이 내면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건강하고 밝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 대구 영남불교대 생명나눔 방생 장기기증 서약 헌혈로 범회 봉행



대구 영남불교대학이 장기기증과 헌혈 등 인간방생 차원의 새로운 방생법회를 주도하고 있어 화제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2월 11일 4층 법당에서 스님과 신도 500여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약 500여명이 헌혈(사진)을 하는 생명나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장기기증과 헌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잘 실천하는 일이며 불교계 전체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회는 올해 두 번째 맞는 생명나눔 방생법회로 올해부터는 일년에 두 번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둘째 일요일에는 초파일 봉축행사를 맞아 두류야구장에서 생명나눔 헌혈법회를 봉행한다. 배지선 기자

### 청도군 적천사 반야회 무료급식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초청 계획

시골마을 작은 사찰의 봉사회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청도군 적천사 반야회(회장 박영숙) 회원 10여명은 2월 10일 청도대학직실사 봉사회 경로식당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4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다. 아침을 의례히 거르는 독거노인들은 따뜻한 점심 한 끼에 하루 배를 채우기에 점심 공양 배식은 11시부터 이뤄졌다. 이날 메뉴는 청도에서 유명하다는 추어탕. 추어탕 한 대접을 드신 어르신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1999년 결성된 반야회는 3년 전부터는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벌이는 등 각종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 故 안상영 시장 영결식 위패, 내원정사에 봉안



지난 2월 4일 새벽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한 (故) 안상영 부산시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부산시청 옥외공영장에서 부산광역시장(廟)으로 열렸다.

불교식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사진)은 해충 스님 등의 장훈(唱誦), 오거돈 부산시장 관내대행의 영결사, 고인의 유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대성(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해충(감로사 주지), 정련(내원정사 주지) 등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도했다.

유해는 영락공원 남쪽당에 안치됐으며 영정과 위패는 평소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내원정사에 봉안됐다. 천미희 기자

## 세계인 모두 도롱뇽 친구가 되어 주세요

### 4차 심리 앞두고 사이트 홍보 지을스님 '천성산 千人' 선언

도롱뇽 소송 4차 심리가 2월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을 스님은 해외사이트에도 '도롱뇽의 친구들이 되어 달라'는 내용을 올릴 계획이다. 학생들이 재판장에게 쓴 그림엽서나 편지들 해외 환경단체나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띄워 도롱뇽 소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외사이트를 공략해 도롱뇽의 친구들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가 가능한 자원봉사

자를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지을 스님과 천성산보존대책위는 2월 안에 '천성산 천인(千人) 선언'을 갖는다. 지을 스님은 "천명의 성인이 났다는 천성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환경과 생명의 화두를 함께 풀어갈 천명을 모으고 있다"고 천성산 천인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29일, 3월 1일 양일간 천성산에서 낙동강까지 학생, 수녀, 스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습지투어와 생태독립선언 행사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3월초에는 일본 우는 토끼 재판 관련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가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 봉은사 육조단경 논강

●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기 간: 불기 2548(2004)년 2월 21일(토) ~ 4월 10일(토)  
●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보우당 ● 카페: cafe.daum.net/haglim  
● 등참비: 100,000원(교재 제공)  
● 접 수: 봉은사 포교교육팀(516-5652, 3218-4811~17)

육조단경은 조계 해능대사가 설법한 법문의 그 문해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으로 예로부터 선종의 제일 경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이래로 선종수사찰인 봉은사에서는 승가의 선 수행 전통을 계승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오늘날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감로를 제공하고자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강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선 수행이 정신문화와 삶의 문화적 대인임을 각인시키고, 선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문화가 미래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이 함께하는 사부대중 무차 논강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불자들의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날짜	주 제	논 주	논 사	진 행
1강 2.21	육조단경 사상(돈오건성)	해국스님	-	영진스님
2강 2.28	육조단경 사상(괴산의 정의)	해국스님	-	영진스님
3강 3. 6	육조단경 내용(정리(합문))	해국스님	-	영진스님
4강 3.13	육조단경에서 대중불교 수용	성본스님	-	법인스님
5강 3.20	육조단경(무상계)	지안스님	정각스님	이덕진 차 차 석
6강 3.27	육조단경(반야-중관)	이 중 표	각각스님	박인성 윤학성
7강 4. 3	육조단경(불성사상)	김 진 태	태동스님	김재성 김 호 성
8강 4.10	육조단경과 실행수행	고우스님	-	영진스님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포교원·교육원·불교방송(BBS)·불교TV·불교신문·법보신문·현대불교신문